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3호 [루게 제25496호] 주제105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전 9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총리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함께 동행하였다.

절세의 예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추모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송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뒀에 들어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혼재보존실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억년기쁨을 마련

지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혼재보존실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억년기쁨을 마련

려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선군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추켜드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제압해보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청사에 영구 불멸할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초강도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역적으로 다져주신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있어 우리 조국은 수명,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일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존엄멸치며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질풍노도쳐나가고 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갈 철의 의지를 시대와 역사앞에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 실현의 새 장을 펼쳐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의 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이 땅위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의 새시대를 안아 오시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전사, 제자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짐 그날의 맹세를 지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원경만경의 생애를 쌓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자강의 힘을 총동원시켜 만만민민복사에 특기할 사면들과 경이적인 성과를 올린 것이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궤양의 념원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위대한 설에도 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성이 어린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만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대국의 대업으로 천만년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본사정치정보단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 중앙추모대회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



주체의 태양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강산에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뜨겁게 끓어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드시고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으로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만고절세의 예국자,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천만 군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모습은 주체조선의 불세출의 상징으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의 불멸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지난 5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무리에 철통같이 뭉쳐 지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질풍노도처럼 전진하며 조국번영의 새시대, 최후승리의 대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놓았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추모대회장인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으며 기발제양대들에는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추모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방면

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직위군 군기들이 세워지고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받들 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모두 다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에로!》

라는 구호판들이 추모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추모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일군들, 연교자, 절건자, 근로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추모대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추모대회참가자들은 혁명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초월처럼 불태우시며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어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행복을 누릴수 있는 무강번영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3 면 으 로 계 속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 중앙추모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최룡해동지의 추모사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다섯달이 되었습니다.

은 나라 강산을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불멸의 송가 가 울려 퍼지고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도도히 끓어 오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네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전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몸과 심장을 다 바친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최후의 정치가이십니다.

남녘의 저레물과 해외포교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인류사주위임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영성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낳은 위대한 태양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함과 지대로 영생한 선군조선의 불멸성의 상징으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 있으며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세계사회주의운동에 힘있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혁명의 불꽃을 불어넣어 주며 주체적인민들의 힘찬 조향함을 예치시어 주체혁명의 계승완성과 백두산대국의 국제적위업을 위하여 자신을 초월치지 않던 가장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한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이 휘날리는 절고의 밀밭에서 열매의 아를로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재현해보지 못한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을 당대에 실현하시었습니다.

인류정지시에는 명성을 떨친 정치가,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한평생 불변불후의 초강

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참한 탐구와 정략적인 활동으로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 유일혁명도제제를 확립하시었습니다. 주체의 혁명투쟁을 견인해 오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비전자들에 의하여 선대수령님의 영상이 먹칠을 당하고있을 때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금수신기념공원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도록 하시어 이 땅위에 수령님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셨습니다.

다한 혁명도 거창하신 위대한 동상을 모시려는 인민들의 소원마저 불허하시고 오직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명하는 인민을 위하여 전진전진 혁명적 전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김기남동지의 연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부치는 그대음을 안고 어머니수령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의 전도,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평도의 계승 문제를 완결하게 해결하신것은 우리 당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특출한 공적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의 연설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천만군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다섯달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전진하고 장군님과 함께 승리해온 지난 5년간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장군님께서 행하신 다 바쳐 역적으로 다져주신 선군의 총대 가 얼마나 귀중한 혁명유산인가를 알게 되었고, 매 시각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무비의 탁월, 탁월한 선군전쟁에 의하여 비제의 탁월한 전쟁도발책들을 무적의 총대로 걸음마다 짓부셔 버리며 승리만을 펼치는 선군조선의 범적적인 전승이 마련되었으며 조선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재기가 넘어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주시는 사단적인 최전방에 계시면서 그 어떤 위생적에도 드물지 않은 백발의 의지와 천만민들의 지략으로 미래를 추우며떠우 하는 제국주의면 협시력과 단호도로 맞서 싸우시어 세계정세를 유동적으로 군사적위력과 포섭력을 전진시화해 창조하셨습니까.

## 청년들을 대표하여 한 김일성-김정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동지의 연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직은 그대음을 안고 지난 5년간 장군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 줄도 같이하며 생사리온 혼연일체의 나날을 수놓아온 600만 청년동맹의 마음은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기념공원에 대하가 되어 팔려나 감미되고 있습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 일제히 묵상

【평양 12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천만군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12월 17일,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온 나라의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혁명의 수도 평양에 자리잡고있

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부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기관들로부터 지방의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어촌, 학교 등에 이르는 온 나라 방방곡곡의 모든 단위들에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만수대양궁전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대양상들과

영향담, 혁명사적지, 현지지도 사적비들을 끊임없이 찾았다.

그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울려우며 정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마라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전진하고 장군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체혁명위업의 불꽃을 힘있게 피사해온 지난 5년간의 영웅적투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어버이장군님의 대양의 모습을 심장비대에 간직하고

그리움속에 맞고보낸 1820여 일의 낮과 밤들은 수명과 삶을 때아 끊을수 없는 혈연의 뜻과 정으로 심금을 다지며 고결한 총정파 도덕의 리를 지키고 수령영생의 념원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해온 나날이었다.

정각 12시, 전국에 일제히 고성이 울려들었다.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들에서, 달린 기관차들, 항행하던 선박들에서 울리는 고동소리에 산천초목도 격정에 젖어들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다

달리신 인민행아전원차의 기적소리인가, 사무치는 그리움에 어버이를 목매어 찾는 인민의 절절한 부름인가 추모의 고동소리 천지가 진동하였다.

로동당시대 전화회복의 기적이 펼쳐진 조국의 북반방으로 부의 선리방선초소들과 서해의 비탄섬에서 동해의 압성 등대마을에 이르기까지 조국방이 드는 곳마다에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손을 놓고 절음을 멈추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

들,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하여 일제히 묵상하였다.

송엄하게 흐르는 추모의 3분간.

이 3분은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날과 말들

천만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는 순간이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체함해보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영구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만고철세의 애국자 우리의 김정일동지.

은 나라 천만군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오성산의 칼바람길과 철령의 험한 뺨길, 초도의 풍랑사나운 배길과 만문철의 새벽길을 비롯하여 장군님께서 사생전으로 해

가신 선군장정의 험로역경을 드거운 격정속에 되새기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길이 버려질 수 없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어버이장군님을 영원의 주체의 대양으로 송정다해 발돋움시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정일동지,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 김일성광장에서 -



- 통일거리에서 -



-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



- 권리마제장면합기업소에서 -



- 함경남도에서 -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

4 면에서 계속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을 튼튼히 다져 주시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고립압박책들이 극도에 이른 그처럼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주체 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개성을 힘있게 피사하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계조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었습니

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전진단결의 성애를 받고 세상에 일어날수 있었던 일일단결의 위력, 사적사장의 힘을 총괄받아서 만만민족에서 특기할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을 편이이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절사관철하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특출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피사하였습니

다.

지난 5년간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은 혁명의 표상이며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하면 불가능이 없습니

다.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

다.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억년기복과 우리 인민이 떼대손은 복락을 누릴수 있는 부강번영의 존엄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만고철세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영광스러운 김정일시대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기위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열대년 뒤집히고 그 어떤 진지종파가 타쳐와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혁명의 전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명도하시겠다는 혁명불변의 신념을 베풀어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앞질러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유훈대로, 장군님의 대로 전행함으로써 수령의

전사, 제자로서의 의리를 다할것입니다.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하고 경애하는 원수들의 사상과 평도를 일관단결 총지하게 반대하거나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야 하겠습니

다.

전당, 전군, 전민이 온 사회의 김정일-김정일주의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하루빨리 집행해나감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모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워야 하겠습니

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과 평생의 념원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 올리실때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뛰어나갑시다.

천만군민의 심장이 절절한 그리움으로 불타는 12월의 조국강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불멸의 송가가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음악서사시 《장군님의 선군길》 공연이 17일 봉화에순국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한평생 진인미담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만고철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다함없는 경모심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들이 김영남총리, 박봉주총리, 최룡해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인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조국에 온 해외포동대표단들과 동료들, 연극자들, 만민인민군주전선 평양시 대표와 주조 여러 나라의 외국계기주 대표부, 무관부부들, 외국인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와 영원한 운명의 한피줄을 잇고 수령의 유훈관철된, 숭고한 도덕의리의 5년세월을 보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총정의 마음은 사랑 실화와 음악 《장군님께 이비입니다》로 공연은 시작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전진길에 대한 추억》, 민중가악7중주와 노래 《철령아리랑》, 녀성독창과 남성독창 《달라라 선군길아》, 아동중창 《장군님과 아이들》, 관현악곡 《동에 반백 세에 번쩍 빨찌산악이다》, 남성4중창과 설화

원인으로 조국땅위에 강성인정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생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땀방울이 모서져있는 흙에 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엄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땀방울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평평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놓여있었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명적인 령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백승으로 이끄시며 민족반대의 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굳결한 포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땀방울을 우리들 숭고한 정의를 표시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관에서 그 높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회오며 그들은 인민의 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조국땅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진성기가 열리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끼어

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이 어린 혼향보존심과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방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송차와 진통차, 때, 철차보존실물을 주의깊게 붙여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혁명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도를 송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

었다.

다함없는 호모의 정이 어린 혼향보존심과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방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송차와 진통차, 때, 철차보존실물을 주의깊게 붙여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혁명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도를 송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온 나라 강산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울려 퍼지고있다.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이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만수대양궁전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대양상들과 영향담, 혁명사적지, 현지지도 사적비들을 끊임없이 찾았다.

그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울려우며 정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마라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전진하고 장군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체혁명위업의 불꽃을 힘있게 피사해온 지난 5년간의 영웅적투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어버이장군님의 대양의 모습을 심장비대에 간직하고 그리움속에 맞고보낸 1820여 일의 낮과 밤들은 수명과 삶을 때아 끊을수 없는 혈연의 뜻과 정으로 심금을 다지며 고결한 총정파 도덕의 리를 지키고 수령영생의 념원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해온 나날이었다.

정각 12시, 전국에 일제히 고성이 울려들었다.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들에서, 달린 기관차들, 항행하던 선박들에서 울리는 고동소리에 산천초목도 격정에 젖어들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다달리신 인민행아전원차의 기적소리인가, 사무치는 그리움에 어버이를 목매어 찾는 인민의 절절한 부름인가 추모의 고동소리 천지가 진동하였다.

로동당시대 전화회복의 기적이 펼쳐진 조국의 북반방으로 부의 선리방선초소들과 서해의 비탄섬에서 동해의 압성 등대마을에 이르기까지 조국방이 드는 곳마다에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손을 놓고 절음을 멈추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하여 일제히 묵상하였다.

송엄하게 흐르는 추모의 3분간.

이 3분은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날과 말들 천만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는 순간이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체함해보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영구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만고철세의 애국자 우리의 김정일동지.

은 나라 천만군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오성산의 칼바람길과 철령의 험한 뺨길, 초도의 풍랑사나운 배길과 만문철의 새벽길을 비롯하여 장군님께서 사생전으로 해가신 선군장정의 험로역경을 드거운 격정속에 되새기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길이 버려질 수 없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어버이장군님을 영원의 주체의 대양으로 송정다해 발돋움시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정일동지,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음악서사시 《장군님의 선군길》 공연 진행

천만군민의 심장이 절절한 그리움으로 불타는 12월의 조국강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불멸의 송가가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음악서사시 《장군님의 선군길》 공연이 17일 봉화에순국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한평생 진인미담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만고철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다함없는 경모심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들이 김영남총리, 박봉주총리, 최룡해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인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조국에 온 해외포동대표단들과 동료들, 연극자들, 만민인민군주전선 평양시 대표와 주조 여러 나라의 외국계기주 대표부, 무관부부들, 외국인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와 영원한 운명의 한피줄을 잇고 수령의 유훈관철된, 숭고한 도덕의리의 5년세월을 보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총정의 마음은 사랑 실화와 음악 《장군님께 이비입니다》로 공연은 시작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전진길에 대한 추억》, 민중가악7중주와 노래 《철령아리랑》, 녀성독창과 남성독창 《달라라 선군길아》, 아동중창 《장군님과 아이들》, 관현악곡 《동에 반백 세에 번쩍 빨찌산악이다》, 남성4중창과 설화

##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대양상에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온 나라 천만군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12월 17일,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온 나라의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혁명의 수도 평양에 자리잡고있

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부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기관들로부터 지방의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어촌, 학교 등에 이르는 온 나라 방방곡곡의 모든 단위들에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만수대양궁전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대양상들과 영향담, 혁명사적지, 현지지도 사적비들을 끊임없이 찾았다.

그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울려우며 정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마라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전진하고 장군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체혁명위업의 불꽃을 힘있게 피사해온 지난 5년간의 영웅적투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어버이장군님의 대양의 모습을 심장비대에 간직하고 그리움속에 맞고보낸 1820여 일의 낮과 밤들은 수명과 삶을 때아 끊을수 없는 혈연의 뜻과 정으로 심금을 다지며 고결한 총정파 도덕의 리를 지키고 수령영생의 념원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해온 나날이었다.

정각 12시, 전국에 일제히 고성이 울려들었다.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들에서, 달린 기관차들, 항행하던 선박들에서 울리는 고동소리에 산천초목도 격정에 젖어들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다달리신 인민행아전원차의 기적소리인가, 사무치는 그리움에 어버이를 목매어 찾는 인민의 절절한 부름인가 추모의 고동소리 천지가 진동하였다.

로동당시대 전화회복의 기적이 펼쳐진 조국의 북반방으로 부의 선리방선초소들과 서해의 비탄섬에서 동해의 압성 등대마을에 이르기까지 조국방이 드는 곳마다에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손을 놓고 절음을 멈추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하여 일제히 묵상하였다.

송엄하게 흐르는 추모의 3분간.

이 3분은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날과 말들 천만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는 순간이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체함해보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영구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만고철세의 애국자 우리의 김정일동지.

은 나라 천만군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오성산의 칼바람길과 철령의 험한 뺨길, 초도의 풍랑사나운 배길과 만문철의 새벽길을 비롯하여 장군님께서 사생전으로 해가신 선군장정의 험로역경을 드거운 격정속에 되새기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길이 버려질 수 없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어버이장군님을 영원의 주체의 대양으로 송정다해 발돋움시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정일동지,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부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어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 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덩기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등의 글말이 적혀있었다.

군중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인미담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만만민족에서 특기할 없었던 조국인민의 세시대를 열어놓은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리들 삼가 인사할

드렸다.

김일성총합대학, 인민무력

원인으로 조국땅위에 강성인정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생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땀방울이 모서져있는 흙에 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엄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땀방울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평평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놓여있었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명적인 령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백승으로 이끄시며 민족반대의 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굳결한 포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땀방울을 우리들 숭고한 정의를 표시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관에서 그 높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회오며 그들은 인민의 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조국땅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진성기가 열리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끼어

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이 어린 혼향보존심과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방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송차와 진통차, 때, 철차보존실물을 주의깊게 붙여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혁명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도를 송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

었다.

다함없는 호모의 정이 어린 혼향보존심과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방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송차와 진통차, 때, 철차보존실물을 주의깊게 붙여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혁명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도를 송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



【조선중앙통신】



